

## 영어 품사 및 문장요소 용어 재확립에 대한 고찰

이재일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English Part of Speech and Sentence Structural Elements

Jae-Il Yi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영어문법 교수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법용어 즉, 품사와 문장구성요소 용어의 오사용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품사와 문장요소는 어떤 문법적인 기술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품사와 문장요소들은 학교 문법과 일반적인 문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임에도 정확한 재단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품사와 문장요소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혼용하고 있다. 영어의 품사와 문장요소는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영어 교육을 위한 문법용어 설정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교재 및 각종 수험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품사 및 문장요소에 대한 정의를 논의 및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논의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문법용어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 품사, 문장구성요소, 문법용어, 영어교육, 무관사, 명사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incorrect usage of grammatical terms that are quite common in English grammar teaching process and suggests ways to revise and improve the errors. Parts of speech and sentence elements are indispensable for any grammatical explanation. These grammatical terms are a core part of the grammar, but they are frequently used without being verified correctly and interchangeably with no distinction. These terms refer to different things, and when they are used interchangeably, they cause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of grammar cognition. In result, there is a crucial need to discuss and improve the definitions of the grammatical terms defined in the English teaching process for proper improvement in effective English education

**Key Words** : Part of speech, Sentence element, Grammar terms, English education, Ø article, Noun phrase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emyu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8

\*Corresponding Author : Jae-Il Yi(nayltd@semyung.ac.kr)

Received December 28, 2018

Revised January 20,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 1. 서론

문법은 단순히 언어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언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 및 기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문법은 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특히 원어민이 아니면서 비원어민에서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외국어 교육현장에서 학습 대상인 영문법 학습 교재의 문법은 학습자를 위해 문법 체계를 단순화하여 문법 학습에 유익하도록 설정한 일종의 실용 문법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2]. 그러나 체계의 단순화 과정에서 지나친 일반화 또는 단순화로 인해 문법적 측면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과도하게 단순화된다면 학습자들이 중,고급 학습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문법체계를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어교육에서 문법 용어 역시 문법이라는 커다란 범주 내에 위치하고 있다. 언어규칙을 간단하게 기술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을 나타내는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문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법 용어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와 21세기에 들어서 문법이론은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영문법이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문법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용어가 문법규칙에 준거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학습을 위한 교재에는 문법 요소가 포함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언어의 품사 및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요소는 언어 교육에 이용되는 중요한 '상위언어(meta language)'이므로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3]. 품사는 어떤 문법적인 기술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품사와 문장요소들은 학교 문법과 일반적인 문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임에도 정확한 재단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품사와 문장요소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혼용하고 있다[4]. 영어의 품사와 문장요소는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영어 교육을 위한 문법용어 설정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교재 및 각종 수험서에서 정의하고 있

는 품사 및 문장요소에 대한 정의를 논의 및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논의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문법용어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문법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용어가 문법규칙에 준거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문법교육의 변화흐름

1970년대 이후 영어교육의 흐름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법교육의 중요성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문법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으며 영어교육 전문가들 역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교육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단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로 변화된 양상을 보일 뿐이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문법위주 접근법, 의미위주 접근법, 형태초점 접근법을 비교해보면 문법항목의 기계적 연습을 강조하는 것이 문법위주 접근법,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법 구조에 대한 의식적인 학습을 배제한 의미위주 접근법, 그리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 문법 구조에 대한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학습을 강조하지만 기계적인 연습은 배제하는 형태초점 접근법 등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6]. 모두 문법 구조를 학습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동일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교육법의 변화와 그에 걸맞는 문법규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확립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7,8].

이러한 연구들은 영어학습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어의 품사 및 문장요소 정의에 대한 비일관성을 해소하여 영어 교재 및 수험서 개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학습서를 통한 영어학습은 학습자들의 영어문법학습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른 영어학습효과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학습을 위한 교재에는 문법 요소가 포함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언어의 품사 및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요소는 언어 교육에 이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2 인지문법을 통한 문법교육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법교육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써 현행 학교문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영어의 관사 사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9,10].

영어의 관사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대다수의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문장 작성에 있어서 적합한 관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1]. 한국인의 영어작문과 관련된 학습에서 적합한 관사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고 관사의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내용의 핵심은 한국어에 관사의 부재 그리고 수많은 예외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에 영어의 관사에 대응하는 품사가 없다는 것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의 관사쓰임에 관한 문법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관사의 부재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문법이라는 범주에서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문법의 기본 간격을 흔드는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이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규칙으로 규칙의 보편적인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의 일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예외적인 사용규칙이나 특수용법으로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예외조항이 늘어날수록 규칙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법규칙에서 일관성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의적인 규칙들이 늘어날수록 문법규칙을 학습하거나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법규칙에 대한 암기력이나 이해력의 향상은 규칙이 가지고 있는 명확성, 단순성, 일관성 그리고 점진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12,13].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법규칙이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4가지 특성 중 문법규칙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품사 및 문장요소에 대한 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문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는 품사 및 문장요소에 관한 잘못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3. 품사와 문장구성요소

### 3.1 문법용어의 잘못된 사용법

품사란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낱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전통문법 범주에서는 Parts of speec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대 영문법에서는 word classe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12,14]. 영어의 대표적인 품사를 8품사로 분류하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분류되는 문장요소는 언어가 하나의 문장단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분류한 것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문법의 범주라고 볼 수 있다.

품사와 문장요소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적절하지 못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일정부분 합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문법규칙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규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자체적인 오류가 아니라 용어 자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용어 오사용의 예는 품사 ‘명사’라고 할 수 있다. ‘명사’라는 용어는 대표적인 8품사 중 하나로써 특성에 따라 보통, 집합, 물질, 추상, 고유명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위범주로 가산, 불가산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분명 ‘명사’라는 용어 자체는 품사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학교문법에서 ‘명사’를 품사가 아닌 문장요소로 설명하여 문법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도록 만들어 문법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3.2 품사 ‘명사’와 문장구성요소 ‘명사구’

다양한 영어 교수법이나 학습서에서 ‘명사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 또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품사 ‘명사’를 문장요소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단위로 정의하는 것으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 명사는 자체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명사가 문장요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

사에 부가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명사구’라는 형태의 문장요소 단위로 변형되어야만 비로소 문장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래 Fig. 1은 영어 명사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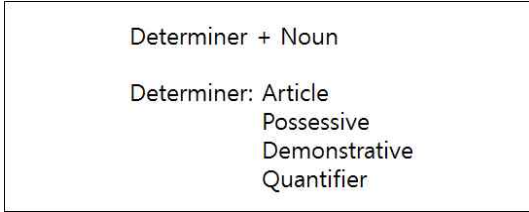


Fig. 1. Basic structure of Noun Phrase[15]

아래 예문들은 문장요소 ‘목적어’ 자리에 단순 품사 ‘명사’가 사용됐을 경우와 ‘명사구’가 사용된 경우를 비교하여 나타내는 예문이다.

- (1) \*John bought computer.
- (2) John bought a computer.
- (3) John bought his computer last year.
- (4) John bought several computers last year.

위 예문들은 모두 목적어 자리에 computer라는 명사가 사용되었지만 예문 (1)은 비문인 반면 (2,3,4)는 정문이다. 비문 (1)과 나머지 예문들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목적어로 사용된 computer 앞에 부가적인 어휘가 첨부되어 하나의 어구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밖에 없다. 보편적인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법규칙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문 (1~4)가 모두 정문이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의 부재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수명사 앞에는 부정관사 a/an이나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설명한다. 이렇듯 단수가산명사 앞에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한다면 예문 (3)의 경우 computer 앞에 관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으로 취급 받고 있다. 따라서 예문 (3)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외적인 규칙으로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법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법규칙은 명확성, 단순성, 일관성 그리고 점진성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문법에서 사용하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법 설명은 명확성, 단순성, 그리고 일관성 그 어떤 것에도 들어맞지 않고 있다.

(5) I need water.

또한 예문 (5)처럼 동일하게 명사로 분류되는 ‘water’의 경우 관사 없이 사용되더라도 정문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예문 (5)의 경우 표면적으로 ‘water’라는 명사가 문장요소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명사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관사의 종류는 정관사 the, 부정관사 a/an, 그리고 무관사 Ø 세 가지로 분류된다. 아래 Table 1은 영어의 관사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Table 1. English Articles

Article Type	
Definite	The
Indefinite	A / An
Zero	Ø

무관사 Ø는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관사로 명사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품사이다. 따라서 예문 (5)의 구조를 단순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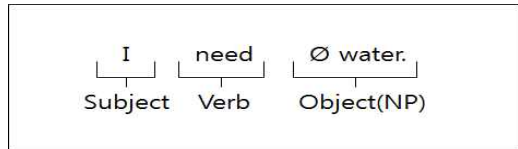


Fig. 2. Sentence structure example.

Fig. 2에서 문장요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구에 해당하는 ‘Ø+불가산명사’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문법이나 학습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명사가 문장요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문법규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문법규칙의 명확성, 단순성, 일관성을 침해하여 학습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품사로써의 명사가 문장요소로 사용될 수 없고 명사구의 형태로 문장요소 역할을 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대 영문법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학교문법에서도 명사구에 대한 문법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문법에서 명사구의 역할을 새로운 형태의 문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교수법에서 단순성과 명확성, 그리고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 문법용어의 재정립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품사와 문장요소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비교분석

아래 Fig. 3에 나타나는 문제는 영어시험문제에서 어법을 묻는 대표적인 빈 칸 문항으로 보기 중에서 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보기를 고르도록 고안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Fig. 3. Exercise example

위와 같은 문제에서 정답을 assistance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보편적으로 동사로 사용된 selected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고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자리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인 명사가 필요하지만 assistant는 가산명사이므로 관사, 소유격 등의 한정사가 사용되거나 복수형태의 명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assistance의 경우 불가산명사이므로 한정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assistance가 정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설명은 문법이 지녀할 속성 중 명확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단순성과 일관성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일한 품사에 속하는 명사 중에서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서 문장 요소로 사용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어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요소를 명사구로 한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법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품사가 문장 속에서 동일한 문장요소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일관성 역시 위배하게 된다.

Fig. 3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품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법 설명에서 오류를 바로잡아서 명사는 문장요소로 사용할 수 없고 문장요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명사구로 변환 되어야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기존 학교문법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게 되고 단순한 오류 수정으로 문법의 일관성과 명확성 그리고 단순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Fig. 4에서 문장요소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구의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요소가 위치해야하고 명사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명사는 한정사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 한정사에 포함되는 품사로는 관사, 소유격, 지

시사, 양화사가 있으며 이 중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관사가 불가산명사인 assistance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기 b)는  $\emptyset$  + 불가산명사 구조로 명사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emptyset$ 는 가산명사와 사용될 수 없으므로 보기 a)의 assistant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한정사가 필요하게 되므로 명사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보기 중에서 명사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보기 b)이므로 정답은 b)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명사가 문장요소로 사용될 때 명사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단순 명사형태 또는 명사구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복잡성을 단순화 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른 문장요소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문장요소 단위를 한정하여 문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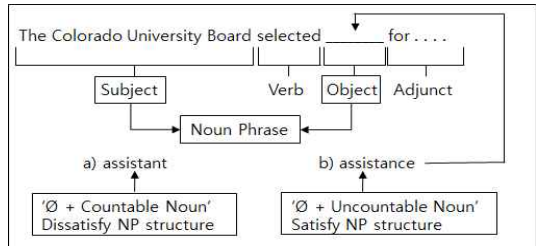


Fig. 4. Structure analysis explanation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문법 용어의 단편적인 오사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언어의 문법체계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순하거나 복잡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언어의 이해에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어느 정도의 문법적 지식과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법 지식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의 습득의 경우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한 문법체계구조 학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의식적인 문법체계학습이 일정 부분 필요하고 효율적 외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 영어 문법 학습의 기초는 정확한 문법 용어의 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언어의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해 문법의 명확성, 단순성, 일관성을 유지하여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교수과정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

는 품사와 문장구성요소 용어의 오사용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인 문법체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점진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법 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잘못된 용어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은 현재 학교영문법이 추구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1] T. G. Chung & G. H. No. (2018). Toward the New Pedagogical Grammar of L2 English Metalinguistic Terms for Pedagogical Grammar. *The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22(1), 153-173.
- [2] J. M. Norris & L. Ortega. (2000). Effectiveness of L2 instruction: A research synthesis and quantitative meta-analysis. *Language learning*, 50(3), 417-528.
- [3] J. H. Kim & H. D. Kim.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f Grammatical Features between English Textbooks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3(3), 213-238.
- [4] D. K. Jung. (2010). A Study on English Sentence Patterns and Its Application: English 5 verb patterns revisited.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4(2), 177-204.
- [5] J. C. Richards & T. S. Rodgers. (2014).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6] M. S. Han & J. B. Hwang. (2015). Current trends and future of research studies in the field of English grammar Instruction in Korea. *English Teaching*, 70(5), 81-108.
- [7] S. Y. Hwang. (2018). An Error Analysis on Business E-mails in English : A Case-Stud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73-279.
- [8] Y. H. Kim. (2018). Utilizing Literary Texts in the College EFL Classrooms : Focused on Linguistic Aspects and Affective On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45-152.
- [9] A. Król-Markefka. (2012). Pedagogical rules for the use of English articles: An evaluat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tudia Linguistica Universitatis Jagellonicae Cracoviensis*, 2012(2), 97-115.
- [10] R. Langacker & R. W. Langacker.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UP USA.
- [11] H. K. Yang. (2008). A Pedagogical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An 'Educational Grammar' Perspectiv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1, 66-83.
- [12] J. K. Noh. (2014). On the Methodology for Parts of Speech Classification. *Studies in Modern Grammar*, 80, 157-174.
- [13] Scott G. Lumsdon, (2009). The English Article System for Korean Learners: Instructional approaches based on Korean learner deficiencies recognizing articles in text.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0(2), 83-92.
- [14] O. Jespersen. (201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Routledge.
- [15] T. Stowell. (1991). Determiners in NP and DP. In Views on phrase structure. *Studies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 37-56. Springer, Dordrecht.

이 재 일(Yi, Jae il)

[정회원]



- 2000년 2월 : 청주대학교 전자공학  
학과(이학사)
- 2002년 8월 : 청주대학교 영어영  
문학과(문학석사)
- 2018년 2월 : 청주대학교 영어영  
문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통사론, 의미론
- E-Mail : nayltd@semyung.ac.kr